

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 ■■■

# 싱글, 위기상황이 와도 결혼한다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을 들자면, 졸업과 입학, 취직, 결혼, 자녀출산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얘기하자면 당연히 결혼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긴 미혼 남녀를 볼 수 있는데, 아예 혼자살기로 작심한 사람보다 계속 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될 경우의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 □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위기 상황이 초래될 경우의 결혼 여부 (미혼 남 : 272명, 여 : 245명)

통계청에서 밝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결혼 적령기인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59.1%로 5년 전(40.1%)에 비해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고, 30~34세 남성의 미혼율도 41.3%로 5년 전(28.1%)에 비해 13.2%포인트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앞으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위기상황이 초래될 경우의 결혼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중 6명 정도가 결혼은 반드시 해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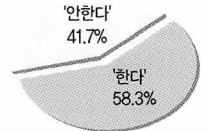
남성의 65.2%와 여성의 58.3%가 '단 몇 일간이라도 결혼생활을 해보고 싶다'(남 : 26.1%, 여 : 50.5%)거나 '불안할수록 의지처가 필요하다'(남 : 39.1%, 여 : 7.8%) 등으로 답해 결혼에 적극성을 보인 것. '결혼해봐야 신경만 쓰이므로 당분간 안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은 남성 34.8%와 여성 41.7%였다.

'위기상황 하에서 평상 시에 비해 더 중시하는 배우자 조건'으로는 남성이 '생사를 함께 나눌 책임의식'(38.0%)을, 그리고 여성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해외 기반, 연고'(39.8%)를 각각 첫손에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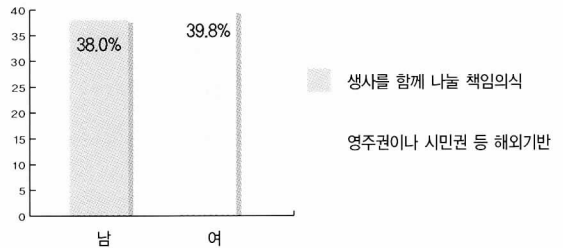
만약 결혼 후까지 불안이 지속될 경우 결혼생활에



〈결혼 여부 : 남〉



〈결혼 여부 : 여〉



〈더 중시되는 배우자 조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남성이 '국내의 안전한 대피처 물색'(23.5%) - '자녀 출산을 최대한 미룬다'(21.6%) - '해외로 이주, 대피'(19.6%) - '아동바동 살지 않는다'(11.8%)의 순으로 답한데 반해 여성은 '해외로 이주, 대피'(35.7%)에 이어 '자녀출산을 최대한 미룬다'(28.6%) - '현금다량 보유'(17.9%) - '아동바동 살지 않는다'(10.7%) 등의 순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마음이 불안할수록 결혼을 통해 위안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비에나레